

Sector Update



범수진
Analyst
sj.bum@samsung.com
02 2020 7763

염형열
Research Associate
hy.yum@samsung.com
02 2020 7769

■ AT A GLANCE

LS (006260 KS, 89,200원)

SELL HOLD **BUY** 124,000원 (+39%)
목표주가

LS산전 (010120 KS, 68,200원)

SELL HOLD **BUY** 80,000원 (+17%)
목표주가

전선업 (OVERWEIGHT)

희비가 엇갈린 3분기 실적 발표

WHAT'S THE STORY?

Event: LS전선과 LS니코동제련의 1회성 손실들로 LS의 3분기 실적이 당사 및 시장 추정치를 크게 하회. 한편 LS산전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3분기 실적을 발표.

Impact: LS니코동제련의 동 해지 관련 손실은 4분기에 환입될 것. LS전선은 한전 해지 케이블 공사 손실 인식이 3분기로서 마무리가 됐고, 일반전선 부분의 매출 감소는 단발성 요인에 따른 것으로 이들 손실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한편 LS산전은 예상했던 대로 주력사업 부분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신사업 적자폭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

Action: LS와 LS산전에 대해 목표주가 및 BUY투자의견을 유지함.

THE QUICK VIEW

LS, 실망스런 3분기 실적 발표: LS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8,81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으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함. 그러나 3Q11 환율 및 동 평가 손실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5% 감소한 것으로, 당사 및 시장 예상치를 하회. 주요 원인은 LS니코동제련과 LS전선에서 비롯되었는데, LS니코동제련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동 해지 관련 기간손익차가 발생하면서 약 100억원의 이익이 4분기로 이연됨. 한편 LS전선은 한전 해지케이블 공사 보수비용으로 162억원을 추가로 인식하였으며, 현대기아차 파업 등 단발성 악재들로 일반 전선 매출과 마진이 저조한 가운데 중동 고수익 프로젝트 매출도 4분기로 집중되면서 LS전선의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음.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LS엠트론의 전자부품 사업부가 스마트폰용 커넥터 물량 증대 및 수출 개선 등을 통해 상반기 영업적자에서 3분기 5.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함으로써 동 사업부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

LS산전,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3분기 실적 발표: LS산전의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9%, 205.4% 증가한 5,738억원, 509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 작년 3분기에 발생한 약 180억원의 평가손실을 감안해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6%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력 사업인 전력 및 자동차 사업부 매출 호조와 더불어 자회사인 LS메탈도 상반기까지 증가한 대형 후속관 수주가 본격적인 매출로 이어진 데 기인함. 한편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교통 SOC 수주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

아직 끝나지 않은 실적 개선 모멘텀, LS와 LS산전에 대해 BUY투자의견 유지: LS의 저조한 3분기 실적은 LS의 실적 개선 및 주가 상승 모멘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회복 중에 있었던 시장의 신뢰감을 다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그러나 3분기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내년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4분기 해지케이블 수주 및 해외자회사 신규설비 가동 등으로 내년도 LS의 이익 개선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LS산전 역시 당초 예상했던 신 사업 적자폭 감소를 통한 마진 개선과 함께 주력사업에서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도 견조한 성장이 예상. 따라서 LS와 LS산전에 대해 목표주가 124,000원과 80,000원 및 BUY투자의견을 유지함.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